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제(尊制)를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 ‘이기신 하나님’ 축복 받는 후보 뽑자

### 국민을 내 몸처럼 여기는 후보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후 국민 갈등이 심각하다. 탄핵 후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대선정국이래 정치권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까 여수선하다. 국제적으로는 사드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일본과는 소녀상 문제로 외교가 심각한 상황이고, 북한은 핵실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마치 구한말 위기 때와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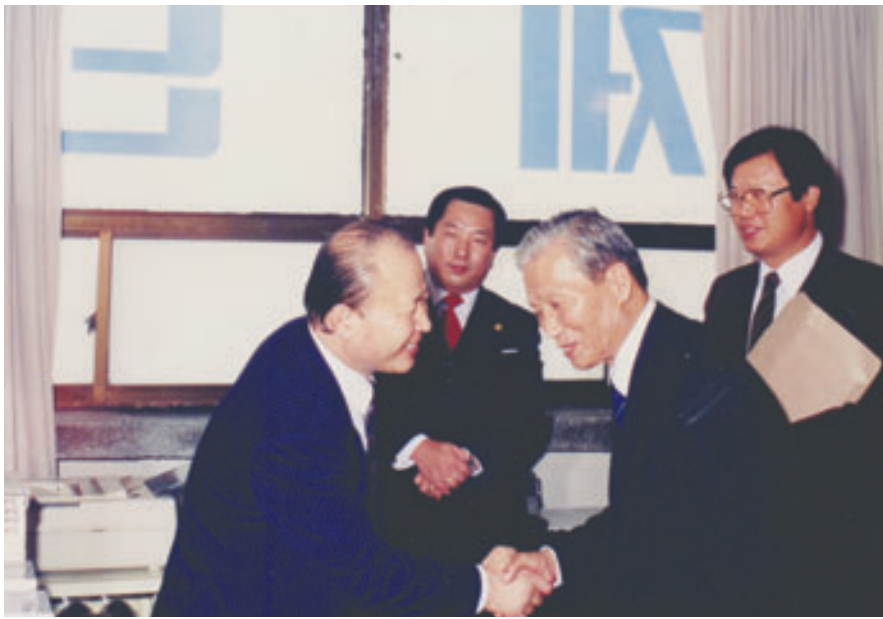
#### 누가 자유율법 잘 지키나

이러한 상황을 돌파해 나갈 국가지도자를 뽑는 이번 대선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나라의 최고 어른이다. 사람의 영혼은 마치 샘물과 같아서 최고로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으로부터 아래로 그 마음이 흐른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영향을 받는다. 지도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인드 세트를 가지고 있느냐이다. 과연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

그동안 우리 승리제단 교인들은 구세주(이기신 하나님)께서 지목한 후보를 지지해 왔다. 그러나 보광(普光) 후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情勢)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 오고 있다. 각 교인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투표하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은 자유율법에 근거하여 누가 ‘이기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후보인지 가려낼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다. 자유율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노병삼(앞줄 오른쪽, 노태우 전 대통령 삼촌)을 접견하시는 구세주

#### 우주 다스리시는 ‘이기신 하나님’

사실 승리제단 교인들은 국제 정세 및 국내 정세까지 ‘이기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기신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공산주의를 소멸시킬 당시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와 레이건 대통령을 마음대로 조종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전두환을 비롯하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까지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 이러한 증거는 다음에 자세히 언급하겠다.

그렇다면 보광(普光)하신 지금은 어떨까? 당신은 ‘이기신 하나님’으로서 분신(分身)과 무궁조화의 능력으로 지금도 국제 및 국내 정세를 마음대로 하고 계신다. 그것은 당신의 목적이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 세계 정세를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 건설을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노태우 대통령 당선 비화

한편 구세주께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좋은 조건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정권과 손을 잡으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 시도는 노태우 대통령이다.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시절 그의 삼촌인 노병삼 씨가 구세주를 찾아와서 조카(노태우)를 당선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다. 노병삼은 격암유록을 공부한 사람인지라 정도령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며, 정도령의 권능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정도령은 노태우 후보를 당선시켜겠다고 약속하였다.

노병삼은 정도령의 약속이 미덥지 못하니 전화로 서울 여의도 광장 유세 시에 김대중 후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사실 당시 대통령선거는 누가 될지 모르는 백중세였다. 전두환을 이은 노태우와 민주화

바람을 타고 있는 김대중. 과연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때였다.

“11월 29일 날 김대중 후보가 여의도에서 유세를 가졌지만 영하 10도까지 내려가서 군중들이 모였다가 그만 추워서 다 해산되고 말았죠. 그러나 12월 2일 날 노태우 후보가 유세를 갖게 되었을 때 영상 15도로 따뜻하게 봄 날씨로 변했죠.(구세주 말씀) 김대중 후보 때에는 날씨가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고, 노태우 때는 날씨가 따뜻하게 만들었고, 바람도 못 불게 했다. 정도령의 풍운조화 능력으로 만든 것이었다. 이것은 부동층에 있었던 표심이 노태우 쪽으로 흐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결과는 다 아시는 대로 노태우가 당선되었던 것이다.

정도령께서는 노병삼에게 노태우가 당선되면 제일 먼저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였고, 노병삼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노태우 당선자와의 만나기 위하여 마포에 위치한 가든호텔로 갔으나 노병삼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노태우 당선자가 일본 외무부장관 일행을 접견해야 하기 때문에 약속이 성사되지 못한다는 통보였다.

참으로 아쉬운 이야기다. 그때 노태우 당선자가 정도령을 만났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이다. 마귀의 방해로 노태우 당선자를 비롯한 위정자들이 구세주의 존재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일개 조그만 교단의 교주로만 보고 발길을 돌렸던 것이다.

하지만 정권자들이 ‘이기신 하나님’의 실재를 바로 알고 대했더라면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고서에 예언된 대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부모국이 되어 인류를 다스리는 처지에 있을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퇴임 후가 아무 문제 없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104)

#### “다시는 떨어짐이 없어야”

여러분들이 인간의 탈을 벗는 순서는 승리자가 된 다음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탈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의 탈입니다. 마귀의 탈을 그대로 입은 채 구원 얻을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긴 세월을 두고 계속해서 그대로 나가면 이루어질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승리자가 된 다음에는 계속해서

‘또 이겼다’가 되어야 됩니다. 승리자가 된 후에 다시 죄인으로 떨어짐이 없어야 됩니다.

승리자가 된 다음 다시 떨어지면 3년 이상 투쟁을 해서 다시 ‘이겼다’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는 떨어짐이 없이 나아가야 할 때에 ‘또 이겼다’가 되고, 그 다음에 완성자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요절을 육비에 새기도록 암송하십시오!

#### 구도의 길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여 말하기도 한다. “저 사람 그릇이 작어”라거나 그 반대로 말하기도 한다. 사람이 애초부터 태어날 때 큰 그릇이 있기는 하지만 후천적으로 큰 그릇이 될 수도 있다. 만년(萬難)을 거쳐서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도 많다.

승리제단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다. 그 중에 그릇은 크지만 승리제단의 조직 문화를 이해 못하거나 적응을 못하여 떠난 사람도 많다. 구세주께서 보광(普光)한 이즈음은 주변에 작은 그릇들만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구세주께서 사람을 키울 때 소인(小人)을 불러 큰 사람으로 키우기 때문이다. 격암유록에도 정도령은 소인능대(小人能大) 즉 소인을 불러다가 능히 크게 키워서 써먹는다는 말이 있다(세론시).

#### 죄의 구멍을 막아라

죄인은 밑 빠진 그릇(독)이다. 얇판 물을 부어봐야 헛수고다. 물이 차지 않는다. 그런데 구세주께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죄인을 의인(義人)으로 키운다. 은혜를 얇판 부어줘야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구멍으로 은혜가 새나간다. 그래도 계속 은혜를 부어주면 나중에 구멍이 메워져서 물이 안 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구세주께서 우리를 키울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키우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내용이다.

누진통(漏盡通)이라는 불교의 술어(術語)가 있다. 번뇌와 망상이 완전히 끊어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경지에 이른 것을 말한다. 흔히 도통(道通)했다면 이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여기서 누(漏)는 구멍으로 샌다는 의미다. 진(盡)은 더 이상 쉴 수 없는 경지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죄인들은 죄의 구멍으로 생명에너지가 다 새어나간다. 음욕(淫慾)으로 새어나가고, 물욕(物慾)으로 새어나가고, 오만가지 욕심으로 새어나간다. 의인은 이런 구멍이 없는 존재다. 의인이 되어야 누진통 단계에 다다른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된다. 에너지가 충만하여 기압과 중력을 벗어날 정도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날아다닐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빨리 죄의 구멍을 틀어막아야 한다. 아직도 구멍을 틀어막을 줄 모른다면 죽는 건 시간문제다. 구세주께서 보광하시기 전에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절로 막아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스스로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제단 맨날 나와 봐야 헛수고다. 죄의 구멍을 빨리 막아라.\*

## 한몸사상 실천 후보 뽑자

#### 국론분열 치유할 대통령

다음 대통령의 우선 과제는 탄핵으로 분열된 산재를 통합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다 통합을 리더십의 첫 번째 요건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알 수 없다. 내 편 네 편으로 갈린 사람들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겠는가?

제일 먼저 상대편의 입장에서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틀린 입장은

없다. 다만 다른 입장만 있을 뿐이다. 상대편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 다음 분열을 일으킨 프레임보다 한 단계 위의 프레임(개념)을 말해야 된다. 그래야 상대편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서울대 최인철 교수의 강연(인문학 강좌 Who Am I?)에서 유의미한 이야기가 있어 소개한다.

어떤 행복한 사람이 있다. 그는 시정

소속 청소부이다.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로를 청소한다. 그런데 그 일이 뭐가 좋다고 맨날 행복함 표정이다.

그걸 지켜본 사람이 궁금해서 묻는다. 청소가 뭐 좋다고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청소하냐? 대답은 이렇다. 나는 도로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청소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매일 청소를 하니 기쁘지 않을 수 있는가. 대략 이런 내용이다. 즉 자기가 처한 위

치보다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현재의 처지를 달리 보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커져서 기쁨이 온다는 것이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내 편이나 네 편이나 다 같은 단군할아버지 후손이다. 이를 조금 확장해서 말하면 우리는 한 몸이다. 나와 내가 다르지 않다.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면 적이 없다. 누구나 하나가 된다.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한몸이라는 사고를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달라진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길 줄 아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한몸사상에 적합한 후보를 뽑아야 한다.\*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 승리제단은 사망을 이긴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 자유율법을 지키고 살면 영생을 얻게 되는

#### 안 죽는 종교입니다.



본지 지남호는 승리제단 홈페이지 <http://www.victor.or.kr>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내 몸처럼

인생은 고해(苦海)라고 합니다. 당신은 이 고통의 바다를 오늘도 헤엄쳐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고통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기신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분은 모든 고통을 이긴 분입니다.

어떤 괴로움과 시련을 이겨내고 싶다면 승리제단을 두드리십시오. ‘이기신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은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예배시간안내			
월-토요일	1부 예배	오전 9시 / 2부 예배	오후 2시
	3부 예배	오후 7시(단, 토요일은 오후 5시)	
일요일	오후 1시		
위치	지하철 1호선 역곡남부역에서 도보 7분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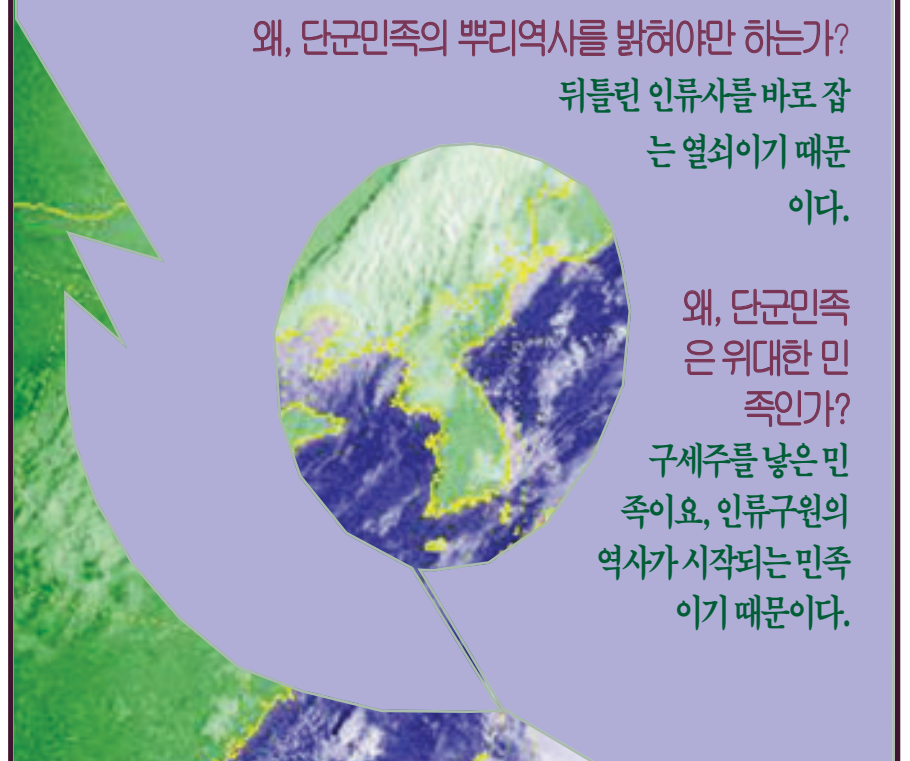
####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우14679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TEL 032-343-9981-2 <http://www.victor.or.kr>

#### 우·리·역·사·바·로·잡·기·캠·페·인

승리제단 우리역사 바로잡기 운동본부  
(연락처: 032-343-9981, 010-5583-4938)

왜, 단군민족의 뿌리역사를 밝혀야만 하는가?  
뒤틀린 인류사를 바로잡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왜, 단군민족은 위대한 민족인가?  
구세주를 낳은 민족이요, 인류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민족이기 때문이다.